

# 박지성 3호골 터졌다

맨유, 리그선두 질주...평점 7  
3경기 연속 결장 위기설 펴져



'산소탱크'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오랜 골 침묵을 깨는 시즌 3호골을 터뜨렸다.

박지성은 2일(한국시간) 오후 영국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2008-2009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미들즈브러와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이기고 있던 후반 6분 추가골을 터트리며 2-0 승리를 완성했다.

박지성은 후반 6분 웨인 루니의 스투패스를 받아 수비수 2명 사이로 페널티아크 정면을 가로지르면서 감격의 골킥을 왼발 슈팅을 날렸고, 볼은 오른쪽 골문 모서리로 빨려 들어갔다.

이로써 박지성은 지난해 9월 22일 첼시전 득점 이후 정규리그 2호골과 더불어 지난 3월 8일 FA컵 8강 풀럼전 득점을 합쳐 이번 시즌 3골째를 기록하게 됐다.

최근 3경기 연속 그라운드에서 서지 못했던 박지성의 결정력이 빛을 발한 경기였다.

선재골은 맨유의 뒷이었다. 전반 25분 루니가 공격에 가담한 수비수 네마나 비디치에게 내준 볼이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으로 흐르자 각스가 침착하게 왼발 슈팅으로 미들즈브러의 오른쪽 골 그물을 흔들었다. 각스의 정규리그 2호골.

후반전 역시 맨유의 공격이 이어졌고,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박지성의 골이 폭발했다.

후반 6분 미드필드 지역에서 볼을 잡은 루니는 오른쪽 측면에서 페널티지역 중앙으로 파고드는 박지성을 향해 정확한 찰러주기 패스를 넣어줬고, 수비수 두 명 사이를 파고들면서 페널티지역 중앙으로 이동한 박지성은 곧바로 왼발 슈팅으로 미들즈브러 골대 오른쪽 구석을 꿰뚫었다.

지난달 8일 FA컵 8강 풀럼전에서 기록한 시즌 2호골 이후 부러 55일 만에 터진 귀중한 골이었다.



박지성이 2일(한국시간) 오후 영국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2008-2009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미들즈브러와 원정경기에서 후반 6분 추가골을 터트린 후 기쁨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영 언론 "지성, 맨유와 4년 재계약"

박지성(28)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4년 재계약에 구두로 합의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영국 대중지 더선은 2일 오전(한국시간) "박지성이 지난밤 주급 5만 파운드

(약 9천600만 원)를 받고 맨유에 4년 더 남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맨유와 계약을 맺게 된 박지성은 세부적인 조건 등이 담긴 공식 계약서에 다음 달 서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광주시청 대회 4연패 질주

남 일반부 400m계주 우승  
조선대 이성 높이뛰기 금  
전국중별육상선수권

광주시청 육상 4총사가 대회 4연패의 금자탑을 세웠다.

광주시청은 3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400m 계주에서 국가대표 임희남의 막판 대역전 질주에 힘입어 41초14를 기록, 상무(41초18)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박경환·이성준·송만석·임희남이 출전한 광주시청 계주팀은 이날 결승에서 세번째 주자까지 상무·용인시청에 이어 3위로 달려 4연패의 꿈이 무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3번째로 바통을 이어받은 마지막 주자 임희남이 파워 넘치는 질주로 상무와 용인시청을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1위로 골인, 극적인 막판 뒤집기를 연출했다. 이로써 광주시청은 대회 4연패의 대기록을 달성하며 전국 무적의 계주팀임을 과시했다. 광주시청은 또한 지난해 전국제전 400m계주에서도 우승, 대회 2연패를 기록 중이다.

남자대학부 높이뛰기에서는 조선대 이성이 2m20을 넘어 윤재환(한체대·2m10)·김지원(한체대·2m10)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일반부 오진욱은 2m10을 기록, 지재형(울산시청·2m20)에 이어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김대배(조선대)는 창년



전국중별육상선수권 남자 400m계주 4연패를 달성한 광주시청 육상팀. 왼쪽부터 임희남·송만석·이성준·박경환선수.

지기에서 3위를 기록했다. 여자일반부 장대높이뛰기에서는 임은지(부산 연세구청)가 한국신기록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실패하고 말았다.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인(4m35)을 보유하고 있는 임은지는 이날 경기에서 자신의 기록에 훨씬 못미치는 4m를 넘는데 그쳤다.

3m80에 바를 걸어놓고 도약을 시작한 임은지는 첫 도전에서 실패했고 2차시점에서 3m80을 넘었다. 임은지는 4m를 1차에서 훌쩍 뛰어넘어 기록 경신 기대감을 부풀렸으나 4m20으로 바를 높이 뒤에는 3차례 시키 모두 공중동작에서 내려오다 복부에 바가 걸리면서 실패했다. 하지만 임은지는 결국 이번 금메달을 획득, 기록 실패의 아픔을 달랬다.

임은지는 지난달 전국실업육상대회에서

4m25로 한국신기록을 달성한데 이어 4m35까지 뛰어넘어 하루에 한국신기록을 2개나 세우는 놀라운 도약을 보였다.

이날 경기에서 자신의 기록에 훨씬 못미치는 4m를 넘는데 그쳤다.

한편 지난 2일 경기에서는 조선대 박영식이 남자 대학부 해머던지기에서 61m78을 기록, 장동원(군산대·59m44)과 김형길(한체대·53m11)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목포시청 이정관은 남자일반부 경기에서 61m92를 던져, 이윤형(국군체육부대·67m71·대회신)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조선대 선지인도 여자대학부 경기에서 48m38로 한체대 박수경(49m82)에 뒤져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서울경기기자 swseo@kwangju.co.kr

## '수비 탁구' 김경아-박미영 조 銅 확보

요코하마세계선수권 여자복식

'수비 탁구' 콤비인 김경아(대한항공)-박미영(삼성생명) 조가 2009 요코하마 세계선수권대회(개인전)에서 한국 선수 중 처음으로 동메달을 확보했다. 김경아-박미영 조는 3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열세번째 계속된 대회 여자복식 8강에서 홍콩의 장푸아-링닝 조를 4-0(11-5 11-4 11-8 12-1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이로써 김경아-박미영 조는 중국의 귀엔딩닝 조와 결승 길목에서 맞붙는다. 동메달을 확보한 김-박 조는 귀엔딩닝 조를 넘어면 귀웨이-리샤오샤(중국) 조와 티에야나-장화준(이상 홍콩) 조간 승자와 우승을 다툰다.

수비수가 호흡을 맞춘 김-박 조는 장푸아-링닝 조를 맞아 끈질긴 커트 수비로 힘

## 신형민 우승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폐회

을 뺀 뒤 빠른 공격 전환으로 득점을 쌓아 1, 2 세트틀 여유 있게 따냈다. 김-박 조는 3세트도 장푸아-링닝 조의 추격을 뿌리치고 나서 듀스 점전을 펼친 4세트 무 동메달을 확보했다.

이로써 김경아-박미영 조는 중국의 귀엔딩닝 조와 결승 길목에서 맞붙는다. 동메달을 확보한 김-박 조는 귀웨이-리샤오샤(중국) 조와 티에야나-장화준(이상 홍콩) 조간 승자와 우승을 다툰다.

이로써 김경아-박미영 조는 중국의 귀엔딩닝 조와 결승 길목에서 맞붙는다. 동메달을 확보한 김-박 조는 귀웨이-리샤오샤(중국) 조와 티에야나-장화준(이상 홍콩) 조간 승자와 우승을 다툰다.

이로써 김경아-박미영 조는 중국의 귀엔딩닝 조와 결승 길목에서 맞붙는다. 동메달을 확보한 김-박 조는 귀웨이-리샤오샤(중국) 조와 티에야나-장화준(이상 홍콩) 조간 승자와 우승을 다툰다.

이로써 김경아-박미영 조는 중국의 귀엔딩닝 조와 결승 길목에서 맞붙는다. 동메달을 확보한 김-박 조는 귀웨이-리샤오샤(중국) 조와 티에야나-장화준(이상 홍콩) 조간 승자와 우승을 다툰다.

이로써 김경아-박미영 조는 중국의 귀엔딩닝 조와 결승 길목에서 맞붙는다. 동메달을 확보한 김-박 조는 귀웨이-리샤오샤(중국) 조와 티에야나-장화준(이상 홍콩) 조간 승자와 우승을 다툰다.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이 3일 오전 11시 경남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폐회식을 갖고 9일간 열전을 마쳤다.

국민체육운동장,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개최로 4월25일 서울올림픽공원에서 개막된 이 대회는 전국 자전거 동호인 선수 23개팀 200여 명이 참가해 9일간 1천260.9km를 달려 23시간43분43초56을 기록한 신형민(대전사이클클럽)이 우승을 차지했다.

폐막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입장하며 시작됐으며 이대통령은 추사에서 "이번 자전거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으로 자전거타기를 더욱 활성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타기 모범국가가 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한국법률경매(주)

0621-225-1688

H.010-3565-2888

※ 위치: 자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 무료주차시설 완비

지역	소재지	면적	층/총수	감정가	최저가
서울	동대문 금호하이문	39	20/20	1억6000만	1억1200만
	금호동 금호하이문	38	18/18	1억9000만	1억3300만
	금호동 리안하이문	37	17/17	1억2000만	8400만
	마곡동 힐파라	32	15/8	1억9000만	1억3300만
	홍성동 현대하이문	49	16/1	1억8000만	1억2800만
	화성동 남화하이문	47	10/9	1억6500만	1억1500만
	광명동 을원하이문	33	17/15	8000만	6300만
	화성동 오원하이문	55	22/22	4억	2억8000만
	금호동 리안하이문	37	17/17	1억2000만	8400만
	금호동 금호하이문	38	18/18	1억9000만	1억3300만
부산	동대문 금호하이문	39	20/20	1억6000만	1억1200만
	홍성동 현대하이문	49	16/1	1억8000만	1억2800만
	화성동 남화하이문	47	10/9	1억6500만	1억1500만
	광명동 을원하이문	33	17/15	8000만	6300만
	화성동 오원하이문	55	22/22	4억	2억8000만
	금호동 리안하이문	37	17/17	1억2000만	8400만
	금호동 금호하이문	38	18/18	1억9000만	1억3300만
	동대문 금호하이문	39	20/20	1억6000만	1억1200만
	홍성동 현대하이문	49	16/1	1억8000만	1억2800만
	화성동 남화하이문	47	10/9	1억6500만	1억1500만
대구	동대문 금호하이문	39	20/20	1억6000만	1억1200만
	홍성동 현대하이문	49	16/1	1억8000만	1억2800만
	화성동 남화하이문	47	10/9	1억6500만	1억1500만
	광명동 을원하이문	33	17/15	8000만	6300만
	화성동 오원하이문	55	22/22	4억	2억8000만
	금호동 리안하이문	37	17/17	1억2000만	8400만
	금호동 금호하이문	38	18/18	1억9000만	1억3300만
	동대문 금호하이문	39	20/20	1억6000만	1억1200만
	홍성동 현대하이문	49	16/1	1억8000만	1억2800만
	화성동 남화하이문	47	10/9	1억6500만	1억1500만

光州日報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062)227-9600

☎FAX:(062)227-9500

H-P 010-6218-1249

인기폭발 신제품!!

이내가 '큰놈'

개발한

약, 주사, 링, 펌프가 아닙니다. 아내가 개발한 발기부전을 개선하는 신제품 기구입니다. 노안도 사용 즉시 우뚝서며 조루나 작은 분도 사용이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합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만족도는 제일 높은 불티 나는 큰놈입니다.

저렴한 가격 99,000원

신청상담전화 20-0441616호

회춘의 "꿈" 파워마카

파워마카 100(분말)

(마카원료로만 100% 함유된 제품임)

자기 몸은 스스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인생에 사는 재미가 없으면 삶의 입은 벌어지지 않고, 남자에 자존감을 되찾는 기쁨을 누려 황금기 인생으로 살아야 최고로 할 사는 것입니다.

1개월분 90,000원 / 2개월분 150,000원

상담 010-8558-4114 / 02-2672-0454

전화 010-8952-4114 / 02-2633-4110

서울 영등포 6가 11번지 영원 B/D 310호 글로벌테크  
 영업 130035-51-119565 / 119565 / 119565 / 119565 / 119565 / 119565  
 휴일 후 주소를 불러주시면 당일 발송 예정입니다.  
 흥신판매신고 제 19-5301호 / E-mail. yangko719@hanmail.net